

이기는 삶

충(忠)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②

청렴결백했던 최영은 조정의 중심을 잡고 권력의 방종(放縱)을 막는 일에 힘쓰는 한편 권세자들이 토지를 겸병(兼併)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노력했으며 상벌의 시행이 문란해져 있는 현실도 바로잡고자 했다. 왜적이 개경으로 쳐들어올까 두렵다며 너도나도 천도를 주장했을 때에도 최영은 홀로 개경을 굳게 지키기 위해(計策)을 진언하였다.

나랏일만 걱정할 최영

임금이 기어어 도움을 옮기려 하자 "지금 천도하게 되면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적들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넘보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 나라는 장차 궁지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계책이 아닙니다"라며 철 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조정의 분위기는 최영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최영도 "내가 밤새도록 나랏일을 생각하였다가 이튿날 아침에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재상들 중에 내 마음과 같은 이가 없으니 차라리 치사(致仕, 사임)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과연 최영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까? 학문이 짧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독선적이었지만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다. "내가 이미 늙어서 사리에 어두우니 내 행동이 의리에 맞지 않는다면 청컨대 참묵하지 말고 늙은이를 일깨워 주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포용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총사령관이자 수석 재상에 걸맞은 안목과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한계였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혁신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며 또 이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지 최영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국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물론 그가 우왕의 잘못된 행동과 난정(亂政)에 대해 침묵한 것만은 아니다. 우왕이 총애하는 하인들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자 "소인(小人)이 관직을 얻게 되면 필시 제멋대로 굴게 됩니다"라며 반대했고, 우왕이 궁궐 밖으로 놀러 나가려 할 때는 "지금 거둬들여 기근이 닥쳐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철인 이때 임금의 유희를 위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라고 간언했다.

백성에게 향하지 않은 것은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최영의 노력이 점점 침묵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는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의 전횡을 13년간이나 침묵하는 등 부패한 세력을 제거하거나 정치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인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들의 전횡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최영은 1388년(우왕 14년) 어명을 받아 이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던 말인가. 우왕이 최영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일거에 간신들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고려의 멸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왕은 끝까지 무능했다. 만약 우왕이 직접 출전해 요동정벌군을 지휘하겠다는 최영을 묶어두지 않았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임금이나 참모가 백성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급급해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며 임금의 힘은 백성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꾸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여러분들이 마귀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곧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다. 그리고로 나라고 하는 영이 마귀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지배를 하는고로 최고의 강자이다. 최고의 강자인고로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 백 번, 수 천 번 도전을 계속하여야 한다. 도전할 때마다 백전백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때 마지막에 완전히 이기는 비결이 나오게 되어 있다. 세상에서도 싸움을 할 때 한 번에 센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자는 실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꾸준히 도전을 하고 또 다시 도전해야 마지막에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웃음은 영생의 비결. 혼자서도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웃으면서 운동을 하하라~
효능: 상하좌우 몸통 비틀기는 팔 다

리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전신 운동 효과, 옆구리 근살제거, 하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균형감각과 평형감각을 키워주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주의: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수련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팔다리 배합운동을 적절하게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한다.

동작①: 양다리를 어깨 두 배 너비로 벌린 후 양팔을 왼쪽 45도 위로 들어 올린다. 좌우 교대로 10회.

동작②: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접어 왼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양팔은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뿌려준다. 좌우 교대로 10회.

동작③: 양발을 나란히 서서 왼 다리를 뒤로 보내 발바닥 전체를 바닥으로 밀면서 양손을 위로 쭉 퍼준다. 다리를 좌우 교대로 10회.

동작④: 호흡을 내쉬면서 왼다리를 앞으로 보내 90도로 접으면서 양팔을 바닥을 향해 뿌려준다. 좌우 교대로 10회.*



격암유록 新해설 제77회

하늘나라 큰 잔치에 천하 만민을 다 청하나 참여자(參預者)가 드물구나

格菴歌辭 격암가사

布德天下大急時를
포덕천하대급시
엄동설한긴밤이 하도 안새더니
鷄鳴無時날이새어日出東方 발가엿네
계명무시 일출동방
億兆蒼生격정근심 무서웁다날이새니
억조
夜寤發동주저주저 마귀어디갈니
야귀발

정도령이 천하에 널리 사람이 죽지 않는 대 도덕을 펼쳐야 하는 아주 급한 시기를 맞아 엄동설한의 긴긴 밤이 하도 안새더니 시(時)도 때도 없이 닭이 울어 날이 새니 해가 동방에 돌아 사방이 밝아왔구나. 억조창생이 엄동설한의 긴긴밤을 근심 걱정하고 무서워하며 지내다가 마침내 날이 새니 그간 발광(發狂)하며 날뛰던 야귀(夜鬼)가 주저주저하는구나. 마귀야 어디 도망갈 때가 있느냐?

회개自責사림되라 至公무사하나님은
자책 자공
不(불)고죄악다오라네
七七(칠칠)번죽어死境에 穀種三豐(곡종삼풍)일세
칠칠(칠칠)번죽어死境에 穀種三豐(곡종삼풍)일세
三年不雨不耕地에 無穀大豐(무곡대풍)일세
삼년불우불경지 무곡대풍일세
마훤(鬼)어디갈니 간곳마다
凶年凶字 무곡天地(아포로다)
흉년흉자 천지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사람이 되어라. 지극히 공평무사(公平無私)하신 하나님은 지난 죄를 따지지 않고 다 오라 하시네. 사십 구일 동안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

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화우로 삼풍 감로 해인을 먹기만 먹으면 신선이 되리라. 삼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밭을 갈지 못한 땅에서도 세상 곡식 없이도 대풍(大豊)이 드는 심승일세. 마귀야 어딜 가겠느냐? 가는 곳마다 흉년(凶年) 흉자(凶字)이니 먹을 양식이 없어 천지가 다 굶어 죽을 뿐이로다. 즉 마귀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흉년 들어 굶어 죽는 이치와 같은 세상이 된다는 뜻이다.

人言二人十八寸에 生春和氣(인언이)던가
인언이인심팔촌 생춘화기
自心天主(自心)므로근로로 不免심판지(自)이라
자심천주 불면 옥
白衣人心(白衣)朝鮮人들 不顧左右(不顧)히가자
백의인심조선인 불고좌우금
世界十勝(世界)조선인데 조선인이 왜못가노
세계십승 인
하나모르조선인이 알아보자야

‘人言二人十八寸인언이인심팔촌은 신천촌(信天村=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을)의 파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을에 봄의 온화한 기운이 들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느니라. 몸과 마음이 깨끗한 백의민족 조선인들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자. 세계 심승이 조선(朝鮮)인데 조선사람이 왜 못가? 하나도 모르는 조선사람들아, 알아보자 알아 보소.

平安方이 朝鮮(朝鮮)인데 어서가자어서가
평안방 조선
生命線이 끊어질나 어서가세벗비가세
생명선
서로서로손자버라

이消息이 何消息고 압헤가자뒤에서라
소식 하소식
때가잇서오라는가
天國大宴(天國)버려져나 天下萬民 다請하나
천국대안 천하만민 청
參預者가 드물구나
참여자

평안방(平安方=평화롭고 편안한 방위)이 조선인데 어서 가자 어서 가. 생명이 끊어질라. 어서 가서 바빠 가서. 서로서로 손잡아라.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고? 앞에 가자 뒤에 서라. 때가 있어 오라는가? 하늘나라 큰 잔치가 벌어졌나? 천하 만민을 다 오라고 청하나 참여자(參預者)가 드물구나.

人心(人心)即(即)오라하네 勝己(勝己)之(之)네미라라
인심즉천 승기명지
朝鮮(朝鮮)인 악(惡)되면 너의 前程(前程)말아나네
조선인심 화 전정
원수업던 대(大)원(恨)이 生死(生死)중(中)매(매)쳐던가
한 생사중
올케가면(올케)인(인)데 글(글)게가서 凶(凶)路(路)일세
정로 흉로
凶(凶)路(路)길을가자말라 붓(붓)드는者(者)엇(엇)더냐고
흉로 자
是非(是非)是非(是非)非(非)아니나 天(天)命(命)婦(婦)인(인)말(말)말(말)삼
사비사비사비 천명부인

不知者야 嘲笑(嘲笑)마라
부지자 조소
內(內)室(室)계신 阿(阿)父(父)말(말)삼 外(外)堂(堂)계신 囉(囉)囉(囉)말(말)삼
내실 아부 외당 엄마
內(內)外(外)舍(舍)通(通)世(世)이라 잘(잘)죽(죽)어(어)라네이놈들
내외합연통세
不(不)孝(孝)莫(莫)大(大)無(無)道(道)者(者)야 父(父)母(母)마(마)음(음) 不(不)安(安)하다
불효막대무도자 부모 불안

사람의 마음이 즉 하늘이나라. 마귀의 마음을 버리고 참된 사람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네. 나보다 재주 좋고 잘난 사람을 싫어하지 마라. 조선(한국)사람들의 인심이 악화(惡化)되던 너희 앞길에 말 아니네. 원수 없던 사람끼리 무슨 큰 원한이 생겨나서 생사(生死) 가운데 댕댕던가? 옳게 가면 정로(正路)인데 그르게 가서 흉로(凶路)일세. 흉로 길을 가지 말라고 붓드는 자가 어땡다고 시비를 거느냐? 하늘의 명을 받은 엄마 말씀도 모르는 자들아. 비웃지나 말아라. 내실(內室)에 계신 아버지 말씀과 외당(外堂)에 계신 엄마 말씀이 내외(內外)가 합해진 하늘의 말씀으로 세상에 다 통하느니라. 잘 죽어라. 네 이놈들 불효막대하고 사람의 도리도 모르고 막된 놈들이! 부모 마음 불안하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단전호흡

조희성님도 이심전심을 자신을 이기고 부처가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써 말씀하셨다. 부처님을 바라보면 부처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님을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들어온다. 즉 바라보는 대상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되고 싶다면 부처를 바라보라고 하셨다. 만일 마귀니 영이 강하게 점령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귀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희생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중환자들 면회를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령이 가득 찬 사람이 면회한 후에는 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병원 관계자들은 경험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면회 제한을 하는 것이다.

평범한 우리도 이심전심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슬픈 친구를 만나면 슬퍼지고, 기쁜 사람을 만나면 기뻐진다. 이심전심이다. 영력(靈力)이 강한 사람에게 약한 영이 지배됨으로 선한 사람들이 많이될수록 이 세상은 이심전심의 법칙에 의해 좋은 세상으로 빨리 변화될 것이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한 도인(道人)으로부터 단전호흡을 배웠다. 그 도인은 산속에서 서산대사로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단전호흡을 수

련하였다고 한다. 내가 배운 단전호흡은 단전으로만 숨을 쉬는 복식호흡만이 아니었다. 처음 단전호흡을 배우는 자는 누구나 단전이 있는 아랫배를 주먹으로 때리게 했다. 2인인 한 조가 되어서 서로 아랫배를 때리는 것이다.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때렸다. 아랫배를 때리는 원리는 인체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픈 곳으로 기운이 모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랫배를 가격하면 그곳에 기가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아랫배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기마자세를 한 상태에서 맞았는데 상당히 아팠다. 그것도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장도(長刀) 뒷날로 때렸고, 그다음에는 칼날로 때렸지만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다.

단전호흡을 한 뒤로 군대 시절 다친 허리가 거의 완쾌되었다. 논산훈련소 23연대 본부중대 군수과에서 24중계를 담당했는데 그곳이 훈련소라 신병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되는데 약 삼사십 일 소요된다. 그 훈련병들 피복 일체를 내가 관리했는데 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빠듯한 후 잘 나지 않다가 제때할 때는 거의 기어서 나오다시피 했었다. 제대 후에 침을 맞고 했지만 고질병이 되어서 허리가 부자유스러웠었다. 그런 병이 단전호흡으로 꽤 좋아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 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재단 032-343-9981~2

전국재단 및 해외재단 연락처

역곡재단 : (032)343-9981-2
수원재단 : (031)236-8465
안성재단 : (031) 673-4635
평택재단 : 010-7516-1591
부산재단 : (051)863-6307
영도재단 : (010)6692-7582

김해재단 : (055)327-2072
대구재단 : (010)6530-7909
마산재단 : (055)241-1161
진주재단 : (055)745-9228
진해재단 : (055)544-7464
영천재단 : (054)333-7121

사천재단 : (055)855-4270
포항재단 : (054)291-6867
순천재단 : (061)744-8007
정읍재단 : (063)533-7125
군산재단 : (063)461-3491
대전재단 : (042)522-1560

청주재단 : (010)5484-0447
충주재단 : 010-9980-5805
양평재단 : 010-2945-8254
橫濱(橫濱)재단 : (045)489-9343
神戶(神戶)재단 : (078)862-9522

下(下)關(關)塚(塚) : (0832)32-1988
大(大)阪(阪)塚(塚)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